



日本製粉業界의 現況

李 淮 三

(韓國產業研究所)

2百 38個業體 가동

日本의 제분산업 및 빵·면류·마카로니등의 小麥關連業界는 급속한 成長發展을 거듭하여 이제는 식품산업중에서 극히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

먼저 日本 제분업계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말한다면 제분공장수가 238個工場, 설비능력은 日產 약 31,000톤 종업원수는 약 12,000명으로 集計되고 있다.

1975년도의 제분원료로서의 小麥使用數量은 약 560만톤, 소맥분 생산수량은 400만톤이다.

10年前과 비교한다면 설비능력은 거의 변동되지 않고 있으나 工場數는 약 반으로 줄어들었다.

小麥粉의 1인당 소비량도 1955年 이후 급속한 신장은 멎었으나 최근 10년간은 31kg정도로 안정되었으며 1975年은 31.5kg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쌀의 소비가 매년 감소되는 결과와 대조적인 현상으로 들 수 있겠다.

여기서 日本 製粉業界의 어제와 오늘을 간추려 말한다면 이미 지금으로부터 80년전에 近代제분의 시초를 쌓았으나 눈에 띌 정도로 성장을 가져오게 된것은 32년전의 세계 제2차 대전 후라고 볼 수 있겠다.

日產능력 3萬 1千톤

1945년 제2차대전이 終結된후에 日本國內의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이의 타개

를 위해 美國으로부터 원조물자로 식량을 수입하게 된 때 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수반하여 日本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황폐화한 데전에서 급속한 부흥을 가져와 제분공장이 1951년에는 무려 3,100개소를 해아리게 되었으나 그중에는 小規模工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도적으로는 지금부터 25년전인 1952년까지는 麥類는 쌀과 같이 政府의 直接 통제하에 있으므로 해서 제분공장은 정부로부터 위탁 가공을 했다.

그러나 1952년 7월부터 直接統制에서 「間接統制」로 전환, 운용면에서 變化를 갖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자면 原料小麥의 할당이나 가격 등은 현재 통제하에 있으나 제품인 小麥粉은 自由판매로 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같은 小麥統制 철폐를 계기로 통제 철폐시에 約 3,100個所의 工場이 1955년에는 1,100個로 줄어들었으며 1965년에는 480個工場으로 급격한 감소현상을 빛어 25년후인 지금에는 238개 공장으로 거의 10분지 1로 감소되었다.

小麥粉은 自由販賣制

다음은 日本 國內 小麥에 관한 몇 가지를 설명한다면 1961년대까지 178만톤대를 기록, 밀증산을 해왔으나 그후 점차 감소현상을 보여 최근 수년간은 20만톤대로 줄어들었다. 이같이 日本國內產 밀의 생산 감소현상은 상대적으로 外麥수입량 증가를 초래, 현재 國내產麥과 輸入外麥과의 비율은 4대 96으로 되었다.

이상과 같이 수입소맥에 대한 의존도가 증대된 까닭으로 제분공장의 입지 조건에도 영향을 미쳐 중소공장이 폐업하는 업체가 늘게 된 원인이 됐다.

이와 같이 공장수는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나 소맥분 생산량은 年年 伸張 되었으며 1960年代 이후는 약 4백만톤에 달하는 성장 추세를 보인바 그 증가요인을 분석해 본다면 食生活의 洋風化, 粉食제품을 中心으로 한 식생활 변천에 크게 영향을 입은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급식 부분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커졌던것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지 않을 수 없다. 즉 1954년 학교급식 재정이래 給食실시 체제가 정비되어 급속한 보급이 이뤄지면서 지금에 와서는 학교급식 실시 학교가 국민학교의 경우 11%, 중학교가 90%까지 실시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어린애때부터 빵식에 친숙해온 것은 직접적으로 분식 보급을 자극한 결과가 됐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60년의 即席라면 1970년대의 스낵식품 디스제품등 신제품이 개발 보급되어 소맥식품이 급증, 소비확대를 불러 일으키게 된 것이다.

製粉관계 團體 5個所

다음은 제분업계 단체와 그 역할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① 제분협회와 ② 協同組合全國製粉協議會 ③ 増產麥中央協議會 ④ ■사료 소맥가공전문공장 ⑤ 財團法人 製粉振興會 등 5개 단체가 있으며 이 5개 단체中活動 상황을 보면 제분협회와 제분진흥회 등 2개 단체의 역할만을 (紙面관계로) 설명크져 한다.

▲ 제분협회활동상~① 제분협회는 30년전인 1947년에 창립되었으며 그 설립 목적은 ① 제분업의 경영에 관한 자료조사 연구.

② 제분기술의 연구

③ 회원 친목을 위한 간담회등 각종 세미나

개최.

④ 분식보급에 관한 계몽 선전.

⑤ 會員間의 상호협조 체제를 이루는데 있으며 산하에는 현재 36個 會員社에 67개 공장을 가지고 있다.

▲ 제분진흥회 1966년에 설립 原料小麥이政府의 管理下에 있는 사정도 있으므로해서一般企業에 비하여 근대적인合理화가 늦어지고 있고 또脆弱性이 눈에 띠게되어 그로 인한企業의 기반정비가 요망되어 있다.

이에 副應하기 위하여 제분진흥회가 설립되었다. 제분진흥회는 業界의 全體發展을 전우기 위해 必要한 資金을 業界內部에 積立시키는 한편 근대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회사에 대하여 資金을 造成하고 있다. 특히 제분회사가 原料買收時마다 買收數量에 따른一定額을 거출하고 그 積立資金을 基金으로 하여 ① 構造改善事業(企業의 폐업造成 합병助成 공해방지 조성)

② 小麥 SILO 建設事業 造成

③ 品質調整사업 運賃造成 事業등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PR資金의 대출 신문·라디오를 통한 보급선전 料理강습회 개최외에 教育사업으로서는 新入社員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강좌·기술강습을 열고 있다.

粉食普及위해 多角的 活動

이상과 같이 製造業界는 각단체를 통한 소매분 보급활동을 꾀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각個企業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약 3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 제과학교를 들 수 있다. 이 학교와는 제분회사가 항상 친밀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협

力과 支援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大規模製粉會社는 美小麥協會 東京支社와 合同事業으로 1971년부터 제빵·제면등의 관계자에 대하여 경영관리강습회·기술강습회를 年 수시로 열고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도 Home Baking에 관한 강습을 빈번히 개최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빵만들기 운동을 통하여 料食普及 계몽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다.

活動費의一部는 美國小麥協會의 후원을 받고 있다.

다음은 日本제분업계의 今后에 관한 展望등에 관해 말하고자 한다.

數年간 日本은 米穀잉여경향이 짙어질 것으로 보며 올해 10월 말 미국재고는 3백만톤을 초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政府는 작년 4월부터 미국소비 확대운동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으며 일단 정착한 國民의食生活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특기 할만 하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은 결과적으로는 麥類需要增加에 대한 制動이 强化되어 있어 米穀 문제는 제분업계로서 무관심하고 있을 수는 없다.

國民食生活의 주요품목인 미국과 백류에 대하여는 장래에도 米·麥·麵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요한 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본다.

業界振興策으로 資金貸出

또 長期적으로 보면 세계의 食糧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日本에서는 主要作物의 自給率向上이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小麥에 對하여도 自給率을 現在의 4%에서 8年後인 1985년에는 9%까지 올리는 政府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製粉協會에서도 內產麥은 經濟的視野에서 볼때 문제가 있지만 業界自體로서 國策에 協

助하는 태세로 나갈 것이다.

이밖에도 금후 문제점으로서

① 工場立地문제 (內麥增產)

② 企業구조에 있어서의 영세성 공장주의
파괴성.

③ 設備과잉과 노후화

④ 人件費등 諸經費의大幅上승.

⑤ 무역자본의 自由化와 國際경쟁력의 강화

⑥ 業界全體의 構造改善등 製粉業界를 둘러
싼 과제는 대단히 많다.

小麥粉製品의 需要是 금후 상당기간 여러가지 정세로 보아 종래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지만 食糧의 主要品目으로서 着實하고 安定的인 伸張을 기하고자 業界關係者가 모두 加一層 노력하고 있다. 다음으로

原料小麥을 運用하고 있는 「食糧管理制度」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35년전인 1942년에 제정된 食糧管理法에 의하여 이뤄진 것인데 제2차 대전후인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戰後의 격심한 인프레 앙등 米穀其他의 식량부족이 계속되어서 식량제도도 供出量을 확보하여 國民의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여하튼 제일의 적인目標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1950년후에는 상품가격 流通의 통제가 폐지되기 시작하였으나 식량에 있어서 1952년의 직접 통제가 폐지되었다.

그리고 다음엔 食糧管理制度와 政府의 麥類 구입과 賣渡에 관하여 說明크져 한다.

첫째로 國內產 麥類의 구입에 대하여는 政府는 1952年以後 종래의 貸出制度를 폐지하고 農家の 申告에 따라 無制限 매입하는 소위 간접통제로 변천했다.

그러나 1955년 이후는 정부매입 가격이 政府를 하가격보다 高價이므로 결손이 생기므로서 國內 麥類의 대부분이 政府에 매도되고 있어 실제상 全量 「外國產麥類의 수입」에 대하여는

商事에 輸入許可를 하여 輸入된 麥類를 輸入港의 貨物에 買入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原料小麥의 대부분 海外의 존

최근 國내產 麥의 매입가격 결정 경향을 보면 1969년이후 72년까지는 년년 3%~7%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특히 2~3년간의 상승율은 진폭이 크다.

「輸入麥類의 政府價格」은 그때그때 수출가격을 참작하고 商事의 견적에 수입 관세에 대하여는 관세율은 소액 20% 결정되었으나 현재는 관세 잠정조치법에 의하여 免稅되고 있다.

「政府의 內外麥類의 賣渡價格」 즉 제분업자의 매입가격은 이것 역시 米價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년 1회 결정해 돼있다.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家計안정을 도모하는 견지에서 소비자 소득의 신장을 고려하여 輸入麥類의 價格, 쌀의 소비가격 기타 경제사정을 참작 결정하게 된다.

즉 72년 이전에 비하면 매도가격은 약 2배가 됐다. 결국 최후에 다킬 식량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으나 政府는 國民식량의 안정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수량의 배가 自給率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1985년을 목표로 하는 농산물의 장기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985년에는 72년에 비해 生產은 27% 수요는 23% 정도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나 自給率 상승은 눈에 띠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세이므로 제분업체는 원료 소매의 테반을 장래에도 海外에 의존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국제적인 협조체제가 무엇보다 요망되고 있는 터이다.